



영어 프로그램 학과장 “페렌츠 거여쉬(Ferenc Gallyas)” 교수

한국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페치 의과대학은 3 개 언어 학부(헝가리어/독일어/영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영어 프로그램”은 “세계화를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영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출신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 데 어우러져 “세계인”이라는 공통된 타이틀로 분류될 수 있게끔 최대한 “평등을 통한 이해”를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르는 영연방 국가들의 유학 환경과는 달리, “외국어로써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서 거론한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더욱 국제적인 수업 환경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이해와 존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의학 교육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평등, 이해, 그리고 존중”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감히 최고의 대학 교육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의 숫자는 내국인인 저희 헝가리 학생들이나 “모국어로 수업을 듣는” 독일/오스트리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학생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만큼, 그 영향력과 기대 수준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생들 특유의 “조용한 배려를 미덕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우리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수진들로부터 “신비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과 발표 등에 나서기보다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까닭은 여러분의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헝가리의 문화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학생 여러분에게는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한국인 재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의료 활동”에 그 포부를 밝히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진취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과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겸양을 갖춘 태도를 통해 “세계인”이 되기에 더욱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라면, 여러분에게 헝가리는 “국제 의료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드릴 것이며, 아울러 저희 페치 의과대학이 갖춘 한국과의 특별한 교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아름답고 축복받은 여러분의 청춘을 훨씬 더 의미있고 활력있는 삶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어 학부장

페렌츠 거여쉬(생화학부 교수)



PÉCSI TUDOMÁNYEGYETEM  
UNIVERSITY OF PÉCS  
한국인 학생 지원 담당 서비스 센터  
Korean Student Service Center